

아동의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and Self-Esteem in Terms of Children's Sex

박영애 · 최영희 · 박인전 · 김향은

한남대 아동복지학과 · 수원대 아동가족학과 · 영남대 유아교육과 · 고신대 가정복지학과

Young-Yae Park · Young-Hee Choi · In-Jeon Park · Hyang-Eun Kim

Dept. of Child Development & Guidance, Hannam University ·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University of Suwon ·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 Dept. of Family Welfare, Kosi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and self-esteem, and to find out if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patterns in terms of children's sex. The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from 984 subjects in 5th grade of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cities of Seoul, Suwon, Daejeon, and Daegu. Results showed that personality factors such as stability, sociability, responsibility, and superiority had stronger correlations with self-esteem factors whereas masculinity, activity level, and reflectivity did so to a less degree. Children's personality factors such as superiority, sociability and responsibility were better predictors of their self-esteem factors such as scholastic competence, social acceptance and general self-worth. Girls showed higher level of stability, sociability, responsibility and superiority, however there was no sex difference in the self-esteem such as scholastic competence, social acceptance and general self-worth. Children's behavioral conduct were mainly explained by masculinity, activity level, and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turned out to be the strongest predictor of behavioral conduct among boys, while the activity level did among girls.

Key words : personality traits, self-esteem, sexual difference

I. 서론

아동기는 자아개념 발달의 결정적 시기(Erikson, 1963)로서 아동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을 기초로 자기 능력이나 가

치에 대해 평가하고 지각하면서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즉, 인식주체로서의 자아가 타인이 자기를 보는 방식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느낌과 태도를 형성해 가면서 자아가 형성되어 간다(James, 1963).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다른 표현으로 "자신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자기 가치감에 대한 개인적 판단"(Coopersmith, 1967)이며, 자신의 역량이나 유능함,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평가(Harter, 1982)이다. 자아

Corresponding author : Choi, Young Hee
Tel : 031)220-2229 Fax : 031)220-2189
E-mail : heechoi@suwon.ac.kr

존중감은 개인의 성격, 행동, 적응 등 일생 전반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인격적 성숙의 지표로 강조되어 왔으며(Vernard, 1993)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나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적응과도 관련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적응을 잘 하지 못하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하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낮은 자존감을 지닌 아동은 부적절감과 무가치감을 보고하였고(Wylie, 1979), 위축행동과 불안행동을 보이며(서선주, 1999), 불안, 고립, 우울감을 경험하고(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 불안, 대인애민성, 신경증 수준이 높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Rogenberg, 1979), 애정을 주고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외롭다고 느끼며 수치감과 우울감도 느껴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Coopersmith, 1967). 그에 비해 긍정적 자존감을 지닌 아동은 자신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함으로써 근심이나 걱정이 적고(Rogenberg, 1979)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잘 적응하였다(신종순, 1990).

이처럼 사회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 특히 중요한 타인들의 반응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발달된다(Rosenberg, 1979).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평가나 반응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의 기초를 이룬다. 그래서 부모의 관심, 수용, 애정과 일관된 훈육을 받은 아동은 대체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게 된다(박영애, 1995; Baumrind, 1966; Maccoby & Martin, 1983). 아동이 성장하여 활동 범위가 가정에서 또래로 확대되면서 또래들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거나 또래들과 일상적 활동을 공유하고(이주리·찰스 엠 수퍼, 1998)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이진화·전경숙, 1995; Harter, 1982; Patterson et al., 1990).

이와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모를 비롯한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 자신이 지닌 특성 또한 중요한 몫을 하게 된다. 아동의 발달이 부모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이 자기의 발달 방향을 잡아간다. 자신이 지닌 성격 특성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며, 그 행동을 바탕으로 아동의 발달 방향이 결정된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은 아동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주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때, 아동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점은 아동이 지닌 성격 특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아동은 자신의 특성을 바탕으로 발달한다고 보는 Carey(1986)와 Thomas와 Chess(1977)의 관점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이해하고자 할 때, 아동이 지닌 성격 특성이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성격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아동의 성격특성은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상관을 보이는가?

둘째, 성별에 따라 아동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성별에 따라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아동의 성격 특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의 불안과 우울 등 임상적 성격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정신적 불건강이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일관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박정희, 1989; 서선주, 1999; Coopersmith, 1967; Patterson et al., 1990; Rogenberg, 1979). 자아존중감과 임상적 성격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일관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 데 비해 자아존중감과 일반적 성격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거의 접하기 어려웠다.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이고 활동적이며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특성을 지닌 아동은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능력과 자아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최영희, 1994). 그리고 자기와 타인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조절하는 아동은 자신의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 학업능력과 사회적 수용도가 높았다(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0). 이처럼 사교적이며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아동은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데 비해 수줍어하는 아동은 사회적 능력에서 유능감을 낮게 지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 자아존중감도 낮았다(Crozier, 1995). 취학전 유아에서 아동기로 갈수록 수줍음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상관정도는 낮아졌으나 10세까지는 여전히 수줍음이 낮은 사회적 자존감을 예언하였다(Asendorf & van Aken, 1994).

이들 연구들을 통해 긍정적이고 안정된 정서를 지니고 활동성과 사회성이 높은 특성, 동시에 수줍음이 낮은 특성이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활동성이나 수줍음은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특성으로 여겨진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활동성이 높으며(김인희, 1994) 수줍음이 낮은(도현심, 1995) 경향을 보이므로 활동성이 높고 수줍음이 낮은 것이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상관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남아의 자아존중감이 여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발달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들은 비교적 그 역사가 오래 되었으나 자아존중감에서의 성차이가 무엇에 기인하는가 보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초기의 연구들(Maccoby & Jacklin, 1974; Wylie, 1979)은 자아개념 전체 혹은 합계에서의 차이로 성차를 분석하였으며 거기에서는 성차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Feingold(1994)가 그 연구 결과들을 메타 분석(meta-analyses)하여 비교하면서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성격 변인에서 .10 내지 .16의 유의 수준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아개념의 합계 점수에서 이처럼 차이가 작은 것을 Marsh(1989)는 성별에 따라 높은 점수를 지닌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논의하면서 남아가 우세한 영역이 여아가 우세한 영역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하였다. Crain(1996) 역시 자아개념에서의 성차가 크지 않으며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서 보이는 성차는 성 고정관념과 병행하나 그 차이는 충분히 크지 않다고 하였다. 운동능력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자존감을 보이고 있었고(Harter, 1985; Stigler et al., 1985) 읽기 능력(Burnett, 1996)

과 사회적 능력(Ford, 1982)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의 성차를 조사한 외국의 연구들이 뚜렷한 성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대부분은 뚜렷한 성차를 보고하고 있는데, 신체능력과(공인숙, 1989; 김치영, 1987; 서미정·김경연, 2000; 서선주, 1998; 이주리·유안진, 1991; 이진화·전경숙, 1995; 한종혜, 1996) 운동능력에서(김치영, 1987; 서미정·김경연, 2000; 이진화·전경숙, 1995; 한종혜, 1996)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자존감을 보이고 있었다. 많은 연구들이 신체능력과 운동능력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진화와 전경숙(1995)은 전체적 자아존중감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연구는 소수가 발견되는데 한종혜(1996)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상과 같이 자아존중감에서의 성차이를 보고한 연구들은 다수 발견되나 이들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에서의 성차이의 현상을 보고하고 있을 뿐 성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였다. 남아가 여아보다 운동능력과 신체능력을 높게 지각하고(Harter, 1982; 서미정·김경연, 2000)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과(Ford, 1982) 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한종혜, 1996)은 무엇에 기인하는가를,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남아와 여아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다르며,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면서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수원, 대전 및 대구 지역에서 각각 1개 초등학교 5학년 아동 전원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4개 지역에서 1113명의 아동과 그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서울 216명, 수원 257명, 대전 285명, 그리고 대구에서 346명으로 모두 1104명의 질문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미완인 경우를 제외한 98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아가 527명(53.6%), 여아가 457명(46.4%)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2가지로서 아동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것이다.

1) 성격특성

아동의 성격은 이상로·변창진·진위교가 육교 중앙적성연구소에서 제작한 초등학교(고학년용) 성격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표준화된 검사로서 기술척도와 임상척도, 그리고 타당성척도의 총 240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기술척도는 7개의 하위영역—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남향성, 책임성, 사려성, 우월성—으로, 임상척도는 2개의 하위영역—우울경향, 불안경향—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특성의 성격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목적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자료분석에서 기술척도만을 사용하였으며 임상척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동은 컴퓨터 채점용 답안지에 응답하였으며 응답한 것을 중앙적성연구소로 보내어 전산으로 채점한 결과를 우송받아 사용하였다.

하위영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안정성; 정서적 안정성 정도로 감정의 안정 및 평온, 확고한 자신과 낙관, 조용하고 침착하며 태연한 것등을 의미한다.
- ② 활동성; 일상생활에서 행동이 민첩하고 정력적, 활동적, 부지런한 성격 측면을 나타낸다.
- ③ 사회성; 대인관계에서의 사교성, 협동성, 대인순응성 등을 포함한다.
- ④ 남향성; 남성적인 성격특성으로 정력, 운동, 노동이 필요한 활동적인 일을 즐기는 특성을

말한다.

- ⑤ 책임성; 인내성, 주의집중, 자기통제, 의지력 등을 포함하며 맡은 일을 끈기있게 완수하며 자발성이 강한 정도를 말한다.
- ⑥ 사려성; 행동보다 사색에 시간을 보내며 사태의 원인 규명, 반박, 논증 등을 즐기는 이지적 경향을 의미한다.
- ⑦ 우월성; 우월감-열등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우월감이 높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며 자기 과시적인 행동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Harter(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SPPC)을 변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분석과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한 박영애(1995)의 척도의 일부 문항 표현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업능력, 운동능력, 사회적 수용도, 신체적 용모, 행동·품행의 5 가지 구체적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으로 모두 6 가지 하위영역을 조사하고 있다.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5가지 구체적 자아존중감의 총계가 아니라 자기가치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질문하는 독립된 문항들로 되어있다. 각 하위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업능력; 지적 능력이나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유능성
- ② 사회적 수용도; 아동에게 중요한 인물이나 집단으로부터의 평가와 수용
- ③ 운동능력;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는 활동에서의 유능성
- ④ 신체적 용모; 자신의 신체와 용모에 대한 지각과 평가
- ⑤ 행동·품행; 올바른 태도와 행실에 대한 평가
- ⑥ 전반적 자아가치감; 총체적인 자아가치에 대한 평가

각 하위영역 별 신뢰도는 학업능력이 .83, 사회적 수용도가 .61, 운동능력이 .76, 신체적 용모가 .79, 행동·품행이 .64,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75였고 자아존중감 전체의 신뢰도는 .90으로 만족할 만 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분석, t 검증, 그리고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아동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

아동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정준상관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성격과 자아존중감은 전체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그리고 신체·용모는 성격의 모든 하위영역들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학업능력은 성격의 모든 하위 영역들과 보통 이상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회적 수용도와 신체·용모에 대한 자아존중감 역시 성격의 모든 하위영역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사회적 수용도는 남향성(.12)과 사려성(.15)과는 낮은 정도의 상관을, 신체·용모는 활동성(.11), 남향성(.13), 사려성(.13)과 낮은 정도의 상관을 보였으며 다른 성격 요인들과는 높은 정도의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성격의 안정성, 사회성, 책임성, 그리고 우월성은 자아존중감의 모든 영역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대인관계에서 사교적이며, 인내와 주의집중으로 맡은 일을 완수하는 책임성, 그리고 자신감 있는 특성이 높은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있었다. 그에 비해 활동성, 남향성, 사려성은 자아존중감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이 있었다. 신체 활동이 활발하고, 노동이나 활동이 필요한 남성적인 일을 선호하는 성격은 자신의 행동과 품행을 바르다고 느끼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행동보다 사색을 즐기며 반박과 원인 규명을 좋아하는 사려성이 높은 성격은 운동능력 지각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격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아동의 성격은 무엇이고, 아동의 성격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어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은 무엇이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동 성격의 전반적 기여양상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격군을 예측변수군으로, 자아존중감군을 평가변수군으로 하여 정준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은 두 변수 집단 간의 상관관계가 최대화되도록 각 집단 내의 변수들을 선형 결합하여 이들의 관련을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이다(장지인·박상규·이경주, 1994).

먼저 성격변인군과 자아존중감 변인군의 정준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정준변량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제 1 정준함수는 예측변수군과 평가변수군 간 상관의 69.2%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제 2 정준함수는 19.2%, 제 3 정준함수는

표 1.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신체·용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기치감
안정성	.33***	.26***	.14***	.28***	.38***	.33***
활동성	.30***	.31***	.30***	.11**	.04	.15***
사회성	.41***	.50***	.28***	.29***	.33***	.41***
남향성	.20***	.12***	.29***	.13***	-.08	.08
책임성	.36***	.29***	.12***	.29***	.53***	.37***
사려성	.34***	.15***	.05	.13***	.28***	.23***
우월성	.46***	.44***	.29***	.41***	.39***	.49***

** p<.01, *** p<.001

표 2. 성격변인군과 자아존중감 변인군의 정준상관분석

정준변량함수	Canonical R	정준근	비율	고유치	F값	자유도
	.708	.501	.692	1.005	16.8***	42
제 1 정준함수 제 2 정준함수	.467	.218	.192	.278	8.2***	30
제 3 정준함수 제 4 정준함수	.285	.081	.061	.088	4.8***	20
제 5 정준함수 제 6 정준함수	.226	.051	.037	.054	3.8***	12
	.155	.024	.017	.025	2.5*	6
	.046	.002	.001	.002	.6	2

*p<.05,***p<.001

는 6.1%, 제 4 정준함수는 3.7%, 제 5 정준함수는 1.7%를 설명하고 있었다. 비록 5개의 정준변량함수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나 제 1 정준함수의 설명력이 매우 크고 다음으로 제 2 정준함수의 설명력이 비교적 커서 그 두 정준함수로 예측변수군과 평가변수군 간 상관의 88.4%를 설명하고 있었으므로 그 두 개의 정준변량함수를 분석하였다.

제 1과 제 2의 정준함수 각각의 정준가중치(W; canonical weight)와 정준적재치(L; canonical loading),

각 변인의 L^2 값이 그 변인이 속한 변인군의 전체 L^2 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 \sum L^2$ 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정준적재치는 예측변수(또는 평가변수) 내 변수들과 정준함수와의 상관관계이다.

<표 3>에서, 먼저 제 1 정준변량함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격의 정준적재치에서 가장 높은 예측변수는 우월성(.87)으로 군내 변량의 약 27%를 설명하였고, 사회성(.81)은 24%를, 책임성(.71)은 18%를 설명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표 3. 예측변수군과 평가변수군의 정준가중치 및 정준적재치

	제 1 정준변량함수			제 2 정준변량함수		
	W	L	$\% \sum L^2$	W	L	$\% \sum L^2$
예측변수군						
1. 안정성	.05	.61	.13	.03	.33	.09
2. 활동성	.22	.46	.07	-.42	-.55	.25
3. 사회성	.21	.81	.24	-.31	-.08	.00
4. 남향성	.09	.25	.02	-.47	-.63	.33
5. 책임성	.22	.71	.18	.71	.56	.26
6. 사려성	.12	.37	.05	.16	.19	.03
7. 우월성	.52	.87	.27	-.02	.06	.00
아동성격전체			1.00			1.00
평가변수군						
1. 학업능력	.41	.78	.23	-.35	-.09	.01
2. 사회적 수용도	.34	.73	.20	-.21	-.21	.05
3. 운동능력	.17	.47	.08	-.49	-.50	.30
4. 신체, 용모	-.00	.56	.12	.12	.09	.01
5. 행동, 품행	.22	.64	.15	.92	.71	.59
6. 전반적 자아가치감	.27	.74	.20	.00	.16	.03
자아존중감 전체			1.00			1.00

정준적재치에서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학업능력 (.78)으로 군내 변량의 23%를 설명하였고, 전반적 자아가치감(.74)은 20%, 사회적 수용도(.73)는 20%를 설명하였다. 이것은 아동의 성격 중에서도 우월성, 사회성, 책임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이며, 자아존중감에서도 특히 학업능력과 전반적 자아가치감, 그리고 사회적 수용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2 정준변량 함수는 첫 번째 도출된 정준변량 함수쌍과는 독립적으로 잔여 변량을 최대로 설명하는 정준변량함수이다.제 2 정준함수에서는 아동의 남향성(-.63), 책임성(.56), 활동성(-.55)이 행동·품행(.71)을 설명하였다. 예측변수에서 남향성과 활동성이 음의 값을 보이고있으므로 그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아동의 남향성이 낮고 책임성이 높으며 활동성이 낮은 것이 높은 행동·품행을 예측함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이 운동과 노동이 필요한 활동적인 일을 즐기는 남성적인 특성이 낮고, 책임성이 높으며, 행동이 민첩한 활동적인 특성이 낮은 것이 자신의 행동과 품행이 올바르다고 지각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2.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 차이

아동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t 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성격특성은 사려성을 제외한 모든 특성들에서 성차이가 나타났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안정성, 사회성, 책임성, 우월성이 더 높았으며 남아는 여아에 비해 활동성과 남향성이 더 높았다.

자아존중감에서의 성차이를 살펴보면 운동능력, 신체·용모, 그리고 행동·품행에서 성차가 나타났는데, 남아가 여아보다 운동능력과 신체·용모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었으며 행동·품행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자신이 운동을 잘하고 신체와 용모에 만족한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여아는 남아보다 자신의 행동과 품행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4.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 차이

하위영역		남아 M(SD)	여아 M(SD)	t
성격 특성	안정성	16.02(5.20)	17.08(4.96)	-3.13**
	활동성	15.43(4.17)	14.57(4.31)	3.02**
	사회성	19.51(4.59)	20.44(4.84)	-2.94**
	남향성	16.38(2.98)	12.24(3.43)	19.09***
	책임성	15.97(4.81)	17.49(5.11)	-4.58***
	사려성	15.42(4.60)	15.36(4.56)	.20
	우월성	17.83(5369)	18.63(5.82)	-2.10*
	자아 존중감	학업능력	2.62(.61)	2.57(.61)
사회적 수용도		2.71(.54)	2.73(.62)	-.32
운동능력		2.69(.64)	2.41(.66)	6.36**
신체·용모		2.72(.73)	2.59(.74)	2.62**
행동·품행		2.53(.50)	2.70(.51)	-4.9**
전반적 자아가치감		3.01(.59)	3.05(.63)	-.76

*p<.05, **p<.01, ***p<.001

3.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에서의 차이

자아존중감에서 나타난 이러한 성차이가 성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 성별로 성격특성군과 자아존중감군의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아의 경우에는 3개의 정준변량함수가, 여아의 경우에는 4개의 정준변량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남, 여아 모두의 경우에서 제 1과 제 2의 두개의 정준변량함수가 평가변수군과 예측변수군간 상관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다. 남아의 경우 제 1 정준함수의 설명력이 63.7%, 제 2 정준함수의 설명력이 24.4%로 이들 두 함수로 88.1%를 설명하였으며, 여아의 경우는 각각 73.1%와 14.7%로 87.8%를 설명하였으므로 제 1과 제 2의 두 개의 정준변량함수의 정준가중치 및 정준적재치만을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아의 경우, 제 1 정준변량함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격의 정준적재치에서 가장 높은 예측변수는 사회성(.84)으로 군내 변량의 약 28%를 설명하였고, 우월성(.79)은 24%를 설명하였다. 남아의 자아존중감의 정준적재치에서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학업능력(.80)으로 군내 변량의 28%를 설명하였고, 사회적 수용도(.73)는 23%를 설명하였다. 즉 남아의 성격에서 사회성과 우월성이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이며, 자아존중감 중 특히 학업능력과 사회적 수용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정준변량 함수는 첫 번째 도출된 정준변량 함수쌍과는 독립적으로 잔여 변량을 최대로 설명하는 정준변량함수로, 예측변수군의 경우에는 책임성(.71)이, 평가변수군의 경우에는 행동·품행(.82)이 적재치가 가장 높았으며, 각각 군내변량의 46%와 76%를 차지하였다. 즉 남아의 성격 중 책임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중 행동·품행을 가장 잘 예측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여아의 경우, 제 1 정준변량함수를 보면 성격의

표 5. 성별에 따른 예측변수군과 평가변수군의 정준가중치 및 정준적재치

	남아						여아					
	제 1 정준변량함수			제 2 정준변량함수			제 1 정준변량함수			제 2 정준변량함수		
	W	L	%ΣL ²	W	L	%ΣL ²	W	L	%ΣL ²	W	L	%ΣL ²
예측변수군												
1. 안정성	.10	.54	.11	-.00	.42	.16	.02	.64	.15	.36	.34	.12
2. 활동성	.32	.54	.11	-.51	-.51	.24	.21	.47	.08	-.47	-.57	.32
3. 사회성	.35	.84	.28	-.42	-.04	.00	.10	.77	.21	-.49	-.26	.07
4. 남향성	.11	.38	.06	-.05	-.22	.04	.02	.26	.02	-.34	-.42	.18
5. 책임성	.09	.62	.15	.88	.71	.46	.29	.76	.20	.44	.45	.20
6. 사려성	.10	.37	.05	.31	.30	.08	.12	.40	.06	.42	.35	.12
7. 우월성	.44	.79	.24	-.01	.15	.02	.60	.91	.29	-.05	-.04	.00
아동성격전체			1.00			1.00			1.01			1.01
평가변수군												
1. 학업능력	.51	.80	.28	-.16	.09	.01	.36	.76	.20	-.08	.07	.01
2. 사회적 수용도	.41	.73	.23	-.23	-.23	.06	.27	.72	.18	-.65	-.43	.25
3. 운동능력	.22	.53	.12	-.40	-.36	.15	.16	.45	.07	-.31	-.39	.21
4. 신제, 용모	.06	.48	.10	.03	.03	.00	-.03	.62	.13	.39	.21	.06
5. 행동, 품행	.13	.52	.12	1.00	.82	.76	.22	.72	.18	.90	.60	.48
6. 전반적 자아가치감	.15	.58	.15	-.07	.17	.03	.38	.83	.24	-.26	.07	.01
자아존중감 전체			1.00			1.01			1.00			1.02

정준적재치에서 가장 높은 예측변수는 우월성(.91)으로 군내 변량의 약 29%를 설명하였고, 사회성(.77)은 21%, 책임성(.76)은 20%를 설명하였다. 여아의 자아존중감의 정준적재치에서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전반적 자아가치감(.83)으로 군내 변량의 24%를 설명하였고, 학업능력(.76)은 20%를 설명하였다. 이것은 여아의 경우에도 우월성과 사회성이 여아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해 줄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에서도 특히 학업능력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2 정준변량 함수의 정준 적재치를 살펴보면, 예측변수군의 경우에는 활동성(-.57)이, 평가변수군의 경우에는 행동·품행(.60)이 적재치가 가장 높았으며, 각각 군내변량의 32%와 48%를 차지하였다. 즉 여아의 성격 중 활동성이 여아의 자아존중감 중 행동·품행을 가장 잘 예측해 주었는데, 활동성이 낮은 특성이 행동·품행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분석한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남아와 여아 모두 우월성과 사회성이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주요 성격특성이었으며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주로 예측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남아의 경우에는 학업능력 이외에 사회적 수용도가, 여아의 경우에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우월성과 사회성으로 예측되는 또 다른 자아존중감 영역이었다. 행동·품행의 자아존중감을 주로 예측하는 성격특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아의 경우에는 책임성이 높은 특성이, 여아의 경우에는 활동성이 낮은 특성이 행동·품행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동시에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성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였다. 서울, 수원, 대전, 대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동 98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자료

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성격과 자아존중감은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성격의 안정성, 사회성, 책임성, 그리고 우월성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을 보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교적이며 책임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는 성격이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영역과 상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적이며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는 Crozier(1995)의 연구,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고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특성을 지닌 아동이 자아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는 최영희(199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였다.

성격의 안정성, 사회성, 책임성, 우월성이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 비해 남향성, 활동성, 사려성은 자아존중감과 비교적 높지 않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남성적인 성격이 그러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격특성들은 우월성, 사회성, 그리고 책임성이었으며 이들 성격특성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자아존중감은 학업능력, 전반적 자아가치감, 그리고 사회적 수용도였다. 우월성과 사회성과 책임성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학업능력과 사회적 수용도와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 차이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즉 여아가 남아에 비해 우월성과 사회성과 책임성이 높았으나 여아의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자아존중감은 남아와 차이가 없었다. 남아는 남아 집단에서, 여아는 여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성과 사회성이 높은 아동이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남여아를 통틀어서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 여아가 남아와 같은 정도의 자아존중감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남아보다 자신의 우월성과 사회성을 훨씬 더 높은 정도로 지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전반적 자아가치감 다음으로 성격으로 잘 설명되는 자아존중감 영역은 행동·품행이었으며 이는 성격의 남향성, 책임성, 활동성으로 설명되었다. 성별에 따라 행동·품행을 설명하는 성격특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아의 경

우에는 책임성으로, 여아의 경우에는 활동성으로 설명되고 있었다. 남아는 책임성이 낮은 특성이 여아는 활동성이 높은 특성이 낮은 행동·품행을 설명하였다. 남아가 여아보다 책임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았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행동·품행을 낮게 지각하였다는 점은 행동·품행은 책임성과 활동성의 성격특성으로 잘 예측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영역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운동능력과 신체용모의 자아존중감은 성격 특성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었으며 성차가 발견되었다. 남아가 여아보다 운동능력과 신체·용모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운동능력이 높고(김치영, 1987; 서미정·김경연, 2000; Harter, 1985; Stigler et al., 1985) 신체에 더 만족한다(공인숙, 1989; 서선주, 1998; 이주리·유안진, 1991)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처럼 성차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운동능력과 신체용모가 성격특성으로는 잘 설명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운동능력과 신체용모는 남아와 여아라는 성에 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운동능력은 근육과 관련되는 것이라 볼 때 단순히 성에 근거하여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으나 신체와 용모의 차이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 연구에서는 신체능력에서의 성차는 뚜렷하지 않은데 비해 우리나라 연구들에서는 일관되게 여아의 신체적 자아존중감이 남아보다 낮게 나타난 점이다. 신체적 자존감은 단순히 자신의 신체나 용모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넘어서 전반적 자아가치와 상관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관은 12세에서 15세까지 지속적이었던 점(Mendelson, White, & Mendelson, 1996), 그리고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이 컸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았다(Konstanski & Gullone, 1998)는 점은 신체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신체적 만족감을 넘어 전반적 자아존중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의 연구들은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성차의 효과가 작으며 성차의 영향력이 작다는 것은 성고정관념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Marsh, Craven, & Debus, 1998)고 논의하고 있으나, 남성 우위적 사회인 나이지리아에서 수

행된 연구에서는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여자 청소년보다 상당히 높았다(Oyefeso & Zacheaus, 1989). 본 연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 여아의 신체와 용모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남아보다 일관되게 낮게 나타난 것은 신체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깊게 자리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여아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안정성, 사회성, 우월성, 책임성이 높은 성격특성은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과 상관이 있으며 여아가 학업능력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높게 지각하려면 남아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사회성과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운동능력과 신체·용모의 자아존중감은 성격특성으로는 잘 설명되고 있지 않았으며 성의 구별에 의해 차이가 있어,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끝으로 행동·품행의 자아존중감은 남아의 경우에는 책임감이 낮은 특성으로 여아의 경우에는 활동성이 높은 특성으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는 성격특성을 파악하고자 성별에 따른 차이를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격특성과 관계되는 자아존중감 영역이 무엇이며 성별에 따라 그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격특성과 관계가 적으며 단순한 성 차이에 기인하는 자아존중감 영역이 무엇인가도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 온 자아존중감에서의 성차이를 성격 요인과 결부시켜 살펴봄으로써 자아존중감의 성차와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성격특성을 격려하고 증진시켜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모든 자기보고식 측정도구가 갖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자기평가이므로 자기보고식으로 조사한 본 연구의 방법이 적절할 것이나 성격특성은 아동의 자기보고 뿐 아니라 타인의 객관적 평가도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남·여아의 성

격특성 차이가 인식의 차이에 근거하는지 혹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성격특성 차이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여아가 자신의 성격특성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에도 자아존중감은 높지 못한 것이 여아가 자신의 성격특성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인지 혹은 여아의 성격특성이 객관적으로도 긍정적이나 사회적 기대로 인해 긍정적 성격특성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성격특성, 자아존중감, 성차

참고문헌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인희(1994). 어머니-자녀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성격특성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도현심(1995). 6학년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5), 1-11.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영애 · 최영희 · 박인전(2000). 아동의 정서기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1(3), 5-23.

박정희(1989). 아동의 우울 경향성에 따른 지각된 유능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미정 · 김경연(2000).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1), 45-57.

서선주(1998). 아동의 귀인양식과 역량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6(8), 1-12.

_____(1999). 아동의 역량지각과 문제행동. *아동학회지*, 20(3), 97-106.

신종순(1990).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주리 · 찰스 엠 수퍼(1998). 역량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과 또래환경 결정요인의 공변량구조모형. *대한가정학회지*, 36(11), 193-207.

이주리 · 유안진(1991). 가정환경과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31-144.

이진화 · 전경숙(1995).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225-244.

장지인 · 박상규 · 이경주(1994). SAS/PC를 이용한 통계자료분석. 서울:법문사.

최영희(1994). 기질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합치모델 검증연구(II). *한국아동학회지*, 15(1), 145-157.

한종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sendorf, J. B. & van Aken, M. A. G.(1994). Traits and relationship status: Stranger versus peer group inhibition and test intelligence versus peer group competence as early predictors of later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 1786-1798.

Baumrind, D.(1966).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887-907.

Burnett, P. C.(1996). Gender and grade difference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descriptive and evaluative self-statements and self-esteem.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7, 159-170.

Carey, W. B.(1986). The difficult child. *Pediatrics in Review*, 8, 39-45.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H Freeman.

Crain, R. M.(1996). The influence of age, race, and gender on child and adolescent multidimensional self-concept. In B.A. Bracken (Ed.), *Handbook of self-concept: Developmental, social, and clinical considerations*(pp. 395-420). New York: Wiley.

Crozier, W. R.(1995). Shyness and self-esteem in

- middle childhood.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5, 85-95.
- Erikson, E.(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Feingold, A.(1994).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ity: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29-456.
- Ford, M. E.(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_____ (1985). Competence as dimensions of self-evaluation: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of self-worth. In R.L. Leahy (Ed.), *The development of self*(pp.55-122). New York: Academic Press.
- James, W.(1963).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 Konstanski, M. & Gullone, E.(1998). Adolescent body image dissatisfaction: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anxiety, and depression controlling for body ma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 255-262.
- Maccoby, E. E., & Jacklin, C. N.(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ccoby, E. E., & Martin, J.(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P.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1-101). New York: Wiley.
- Marsh, H. W.(1989). Age and sex effects in multidimensions of self-concept: Pre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417-430.
- Marsh, H. W., Craven, R., & Debus, R.(1998). Structur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self-concepts: A multicohort-multioccasion study. *Child Development*, 69, 1030-1053.
- Mendelson, B. K., White, D. R., & Mendelson, M.J.(1996). Self-esteem and body esteem: Effects of gender, age, and weigh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1-346.
- Oyefeso, A. O. & Zacheaus, A.(1989). Self-esteem as determined by gender differences among Yoruba Adolescents in Ibadan, Nigeria: A research note.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31, 461-463.
- Patterson, C. J., Kupersmidt, J.B., & Griesler, P. C.(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39.
- Rog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tigler, J. W., Smith, S., & MaO, Lian-wen.(1985). The self-perceptions of competence by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1259-1270.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Mazel.
- Vernard, M. L.(1993). Depression, learned helplessness, and perception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Comparisons between homeless and hous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Wylie, (1979). *The self-concept* (vol. 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3. 5. 13 접수; 2003. 7. 9 채택)